| 현불 논단 |

‘크루얼티 프리’를 아시나요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동물실험 하지않고 동물 성분 없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관심 증가

비건운동 미용상품까지도 확산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바르지 않는
채식주의 新버전 세계적 트렌드로

‘크루얼티 프리’ 불살생계의 실천
관련 철학을 사회 영역 확장해야
변화는 선각자들의 실천서 비롯돼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성분도 포함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이른바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화장품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어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채식주의는 ‘먹고 입는’ 행위의 도덕적 성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용모를 가꾸는’ 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의식 수준은 곧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기도 하다. 먹거나 입기 위해서 혹은 피부에 바르기 위해서 동물의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일은 종족주의 이외의 다른 정당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불고기를 먹고 모피옷을 입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져야 마땅한 이유이다.

최근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 ‘비건(Vegan)’을 선언했던 사람들이 화장품에서도 ‘비건’을 실천하자는 쪽으로 행동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모피나 가죽 옷을 걸치는 대신 인조 모피와 인조 가죽 옷을 입는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거나 동물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거부하며 살고자 한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을 ‘채식의 해’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적 트렌드는 동물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바르지도 않는’ 새로운 버전의 채식주의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교양시민의 자질마저 의심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화장품 속에는 동물성분에서 추출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필연적으로 동물들의 극심한 고통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생행위를 수반했다. 실천윤리학자인 피터 싱어는 1975년 발간한 저서 〈동물해방〉에서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인가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등장은 단지 동물실험이나 동물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의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윤리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크루얼티 프리’의 철학을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점차 넓혀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기 음식을 자제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불살생계의 현대적 실천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에 더해 ‘크루얼티 프리’ 미용제품까지 고수한다면 불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본다. 동물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낮다. 이처럼 주위를 조금만 유심하게 살펴보면 불자로서 사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살생계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어쩌면 불살생계 5.0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돌이켜 보면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항상 조금 앞서간 사람들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의 생산과 소비는 윤리적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이자 불살생계의 21세기적 실천이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조금씩이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조짐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자칼럼

유기동물 향한 자비심에 감사

윤호섭 취재부 기자

얼마 전, 신문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본지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기획기사인 ‘유기동물과 불교’를 잘 읽었다는 독자였다. 나이가 지긋할 것 같은 목소리의 독자께서는 비구니 청솔 스님이 홀로 운영하는 경남 사천의 견공선원(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 연락처를 물어봤다. 기사를 읽고 강아지를 입양하고픈 마음에 신문사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독자 덕분에 견공선원을 취재한지 약 두 달 정도 지나 다시 청솔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님에게 입양을 문의한 독자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보도 이후 견공선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자, 스님은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미안함을 먼저 표했다.

청솔 스님은 우선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월 14일 인터넷판 기사 게재 이후 쉼터 통장에는 많은 후원금이 입금됐다고 한다. 스님은 견공선원 SNS에 5~6월 후원내역을 공개하면서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주셔서 몇 년간 구조한 아이들로 초토화된 진주쉼터 도배장판 공사를 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전주쉼터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후원자들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청솔 스님이 SNS에 올린 20장의 사진 중 절반은 통장 후원내역이었다. 5월 13일까지 견공선원은 통장에 단돈 2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도 이후 5월 말까지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잇달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보냈다. 이 기세는 6월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 청솔 스님은 도배장판 공사 외에도 그동안 유기동물 구조과정에서 빚진 동물병원 진료비를 일부 갚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른바 ‘케어 사태’ 이후 유기동물 구조로부터 멀어진 대중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종교계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출가수행자가 개인적으로, 또 어느 단체보다 투명하게 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 대중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견공선원은 또다시 쉽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물밀 듯이 이어진 후원물결은 대부분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후원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려인들이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쉼터에 무턱대고 맡기는 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쉼터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방사를 고민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버려진 동물들 죽으라는 소리냐”는 손가락질뿐이다. 결국 청솔 스님은 무거운 짐을 홀로 어깨에 메고 다시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개인이 동물을 구조하거나 기를 여력이 있어야만 유기동물 문제에 힘이 되는 건 아니다. 여유가 되는 대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쉼터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비에서 비롯된 따뜻한 마음과 자그마한 실천이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82-5644-83
(예금주-청솔아토유기견묘쉼터)

社 說

광우 스님 원적에 부쳐

광우 스님은 이 시대를 위한 참다운 불교의 역할과 더 나아가 종교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한 선지식이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불교계서 관심을 두지 않은 양로원과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비구니 스님들의 후학양성을 위해 결성한 우담바라회도 바로 교육과 포교, 사회복지란 원력 하에서 였다. 특히 〈법화경〉을 번역 출간해 널리 법보시하고 법화산림도 10년 넘게 여는 법화행자로의 길을 걸었다.

스님이 걸은 법회행자의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이 자체에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스님은 50년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보살행으로서 모두가 이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 전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면서 부처가 되라고 강조한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떤 걸림도 없이 평안해지면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다. 광우 스님은 마지막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걸림 없는 삶을 보였다. 스님께서 남긴 말을 모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의 좋은 문구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스님의 원적에 부처 스님이 평생의 화두로 삼아 정진해온 그 길에 대해 대중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법화경〉은 보살행을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대로 한송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는 것이지요. 연꽃 같은 세상, 좋지 않나요?”

강제수용 사찰 구제책 마련을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도시공원에 자리 잡은 사찰 대부분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지자체들이 법 시행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지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주들에게 돌아가 오랫동안 종교활동을 이어온 사찰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표사례는 대구 범어공원을 들 수 있다. 공원의 60%가 개인 사유지인 데다 땅 주인만 200여 명에 달한다. 이 사유지는 대구광역시가 1965년 범어공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50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지자체가 토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토지주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졌다. 하지만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립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토지주와 녹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으로 전환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찰은 재산권 행사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지만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십 개의 사찰이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각 종단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천년의 숲, 천년의 사찰

BTN 불교TV
영상 공모전

2019.03.25(월) ~ 10.30(수)

공모주제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사계(四界), 불교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출품방법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메일로 접수
(접수처:btnucc@btn.co.kr)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이름_작품명〉으로 기재
*반드시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시 상

대상(1팀)	상금 500만원 및 상패
금상(1팀)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은상(1팀)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동상(3팀)	상금 50만원 및 상패
입상(5팀)	상금 10만원 및 상장

*응모편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작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

공모일정
응모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10월 30일(수)
발 표 : 9월 중 BTN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공모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2~4인) 구성으로 참여 가능

출품규격
해상도 : 1920 X1080
포맷 : mp4, avi, mov 등의 HD 고화질 동영상
작품분량 : 30초~5분 이내
영상형식 : 스팟, 뉴스, 찬불가 뮤직비디오, 60초 영상 등

문 의
공모전 담당자 : 02) 3270-3417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BTN홈페이지(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